

加山農協 게르마늄 쌀 生産成功

게르마늄 포도 성공에 이어 쌀도 성공

가산농협(조합장 심재호)이 수입농산물 개방으로 어려운 농업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했던 게르마늄 쌀 생산에 성공했다.

가산농협은 지난 29일 오후 4시 가산농협 2층 소회의실에서 10여 명의 게르마늄 쌀 재배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게르마늄 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쌀 재배과정에서 액비를 뿌려 생산한 쌀에서 게르마늄 성분이 검출된 것을 다함께 축하하며 2005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가산농협은 올해 처음으로 포도 6천평과 벼 1만1천평에 시험 재배하여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포도를 최초로 생산하는데 이어 쌀에서도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



가산농협 심재호 조합장과 게르마늄 쌀 재배농가가 게르마늄 성분 함유 사실을 축하하며 200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게르마늄 성분 확인은 국가 공

인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게르마늄 성분이 평균 0.079ppm, 최고 0.18ppm

이 함유된 것으로 분석됐다. 게르마늄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영양)는 항암과 노화방지, 성인병 예방, 면역기능증진, 혈액정화 기능, 해독작용의 효과를 나타내는 탁월한 원소들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여 게르마늄 포도와 쌀의 생산은 농업경쟁력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산농협 심재호 조합장은 "올해 시험 생산한 게르마늄 쌀은 15만평에 불과하지만 내년에는 15만평에 197톤으로 점차 늘려 생산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같이 신비롭고 탁월한 고품질 기능성 쌀을 많이 생산하여 안으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가하고 밖으로는 수입농산물 대처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생산비가 추가로 부담되어 생산원가에 상응되는 공급 가격 형성이 우선돼야 확대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가산농협은 추수가 끝나면 게르마늄쌀로 지은 밤에 대한 품평회도 계획하고 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도시가스공사 2년 앞당겨 추진

2006년까지 포천동과 군내면까지 공사완료 합의



이정열 포천시 부시장(가운데)이 도시가스회사 관계자들과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26일 한진도시가스(주)와 극동도시가스(주)등 포천지역의 도시가스공사를 조기에 추진하기로 하고 합의를 작성, 교환했다.

이 합의서에 따라 2006년 상반기 안에 포천시내(한진)와 군내면지역(극동)까지 도시가스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중전 도시가스 공사계획은 한진도시가스가 2008~2009년에 포천동 지역까지 그리고 극동도시가스가 2008년 안에 군내면 지역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포천시가 도시가스공사 조기추진의 필요성과 의지를 도시가스 회사측에 적극 표명함으로써 이날 합의서 체결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과 포천지역의 도시가스공사가 당초 예정보다 2년 이상 앞당겨지게 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도 수출 2천억시대 연다

대기업 첨단업종 공장증설로

올해 초 수도권 대기업 첨단업종의 공장증설면적이 확대되면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현재 공장증설추진중인 도내 대기업의 수출 증가폭이 오는 2010년까지 2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더욱이 이들 기업외에 공장증설면적 확대혜택을 받는 나머지 대기업들도 공장증설에 나서게 되면 추가적으로 수백억달러의 수출증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병갑기자 jpk61@paran.com

우리 지역의 사업소

동호산업

시트접착 필름접착 업계 最高奉



대표 양종진

가구자재, 건축자재, 일반 인테리어자재 등에 필요한 부재료인 합판에 다양한 재질의 필름을 우수한 기술력으로 디자인해 공급하고 있는 임가공 전문업체 동호산업(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640-2 대표: 양종진).

현재 가구업계에 불어오는 칼바람과는 무관하며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으로 협력업체들과 우의를 다지며 성장가도를 달리게 하고 있다. 전국에 50여개가 넘는 협력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동호산업은 고객중심의 차원을 한 단계 뛰어 넘어 "우리는 한 가족"이란 마인드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동호산업은 이러한 경영마인드로 임가공의 생명인 납기약속과 믿음으로 자사의 경쟁력을 펼쳐며 불확탄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얼마전 작업도중에 부주의로 손에 부상을 입었으나 아랑곳 하지 않고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 대표의 모습에서 프로의 정신을 읽을 수 있었다.

현재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은 직원은 아니지만 7명의 직원들은 양 대표와 호흡을 맞추며 제품의 입고, 완성, 관리, 출하까지 맡은바 일에 능력을 인정 받고 있다.

일선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양 대표에게 "같이 일하고 있는 직

차별화된 서비스와 독창적인 노력이 살길

"우리는 한 가족"이란 마인드로 未來開拓

동호산업은 지난 2000년 가산면 마전리에 최신식 기기를 도입 새로운 동지를 마련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트접착, 필름접착에 최고봉으로 업계 수위를 지키고 있다.

양종진 대표는 다년간 가구업계에서 합판 작업을 해오며 협력업체와의 유대강화와 가구업계의 전문지식을 습득하면서 임가공 업계와의 인연이 된 것이다.

현재 사업장에서 야심 찬 계획이라 5년째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양종진 대표는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과 노력 없이는 고객의 취향에 100%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부족, 성장기반 미성숙으로 업체는 제 자리 걸음을 할 것이다"며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와 노력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한다.

이같은 양 대표의 경영철학은 동호산업을

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냐"란 질문에 양 대표는 "직원들이 회사를 운영하지 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나 역시 직원의 일부분이고 직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쾌적한 작업공간 제공과 직원의 우의의 존중의 중요성을 뒤에서 지원 해주며 서로 함께 생존한다는 생각이다"고 잘라 말한다.

또한 양 대표는 영세가구업체가 유난히 많은 포천에서 업체를 운영하다보니 애로점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유통체계"가 하루 빨리 개선되어 섬의 피해를 입는 업체들이 없기를 기대하고 있다. "개혁정신"과 "도전정신"을 개인철학으로 삼으며 산업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직접 팔을 걷어 부치며 일하고 있는 양 대표의 모습에서 서부 개척자의 모습이 연상된다. 문의: 031)543-6301 011)231-3473 정병갑기자 jpk61@paran.com



동호산업은 차별화된 서비스와 독창적인 노력으로 시트접착, 필름접착에 최고봉으로 업계수위를 지키고 있다.

인터뷰 농어민대상 수상자 박호근

경기도가 지난 21일 발표한 제11회 농어민대상 수상자로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에서 호산농협 농장을 경영하는 박호근(50·사진) 대한양돈협회 포천시지부장이 선정됐다.

박 지부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어릴적부터 꿈꿔오던 영농인의 꿈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과분한 상을 받는 것 같다"고 겸손해 했다.

25년간 축산업에 종사한 박 지부장은 "어릴적 가난하게 살다보니 남의 소를 키우게 되었다"며 "그러다 남의 소가 내 재산이 되고 지금의 양돈까지 왔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가정환경이었지만, 축산업에 대한 욕심이 생겨 연암축산전문대학(現 연암대학) 축산과에 입학해 과학영농의 기틀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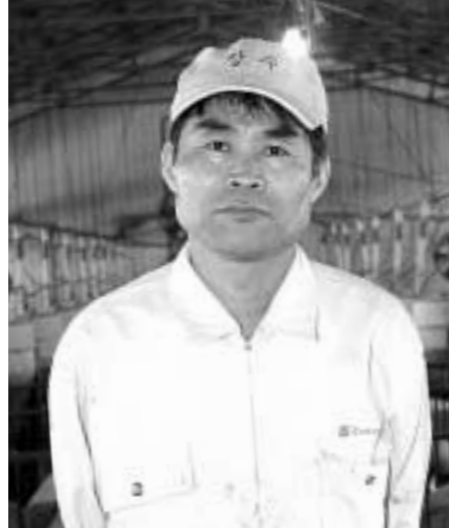
박 지부장이 농어민대상에 선정된 이유는 남다른 경영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매일매일 성실히 사는 것을 그 첫 번째로 꼽는다. 하지만 그 뒤에는 과학영농의 배경이 숨어 있었다.

첫째, 사육기술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연구이다. 종돈장의 적정두수 사육과 월령별 돼지의

돈사이동식 빈돈사의 철저한 세척 및 소독으로 다음 월령 가축을 입식하는 올인아웃(All-in All-out)시스템의 철저한 이행으로 출하일을 10여일 단축하여 번식 회전율을 높여 수익 증대 및 생산성 향상에 연결시킨 점이다. 또 항생제 미사용으로 청정돈육을 생산하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

둘째, 한국공토와 질병에 잘 견디고 생산성 좋은 한국형 종돈 개발로 축산농가의 경영 환경 개선과 생산비 절감을 들 수 있다.

셋째, 유통 및 판매방법 개선



제11회 경기도 농어민대상에 선정된 박호근 지부장

발전의 일거양득의 효과를 위해 축산분뇨를 자원(퇴비)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가타 시와 협조하여 양돈농가의 인공수정조사사업, 종돈개량사업, 농장출입구 자동무인소독기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양돈농가의 축산환경개선 및 경영개선에 공헌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한편 박 지부장은 환경오염에 시와 축산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시에서 적극적인 보조를 통한 재

25년간 축산업 통해 과학영농 이뤄 올인아웃시스템 구축해 철저히 이행

이 높게 평가된다. 이는 지난해 5월 실시한 돼지고기 시식회를 통해 돼지고기의 영양성을 알리고, 다양한 부위를 알려 소비 촉진유도와 가락동 공판장에 집중된 지육시세를 인근 지역과 공동대응하여 수도권 4개

도매시장(서울농협, 부천농협, 인천삼성, 안양협신) 평균 가격으로 출하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넷째, 환경오염방지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펼친 점이다. 즉 환경문제와 농업

처리시설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희망한다.

제11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시상식은 오는 11월5일 경기도 문화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실시하며 시상금은 500만원이다. 지역해 기자 94spice@hanmail.net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라

대학을 졸업한 후 2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 온 홍길동씨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사업을 하려고 준비중이다. 그동안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 온 터라 제품생산 및 판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아직까지 세금 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중소기업창업 세금혜택

1)창업후 4년간 매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 사업자, 창업 후 2년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은 지역제한 없음)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3년간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창업중소기업과 벤처창업중소기업은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업, 방송채널사용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응용 관련업, 물류산업

2) 등록세·취득세등 지방세도 면제된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당시에 대한 등록세와 창업일로부터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며,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사후관리

1)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취득·등기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

의정부의 세무서 031) 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금형 정리중 금형 낙하사고



재해발생상황도

0000년 9월 12시 15분경 경기도 소재 00 산업 프레스 작업장에서 재해자(신장 162cm)는 금형 보관대의 금형을 정리하기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1.9m 높이의 선반에 놓인 금형(중량 15kg)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금형이 머리상부로 낙하하여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였다.

재해발생의 원인으로서는 첫째 작업방법 불량이다. 이는 작업자 신장보다 높이 적재되어 있는 중량물을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력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둘째 보호구 미착용으로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모 미착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금형 등 중량물 취급시 운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금형 등 중량물 취급시 위험요인 및 재해방지 대책을 중점 교육한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